

외국인 주민과 전북지역사회 역할



설 동 훈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만 한국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한국사회와 한국인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적합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어섰다. 전북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미 1만 명을 넘었다. 외국인은 더 이상 신문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웃집에 사는 주민이 된 외국인

그들은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살려온 이민자도 더러 섞여 있다. 도내 소재 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동안 한국정부가 소리 높여 외쳤던 국제화가 이제는 한국사회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형국이다.

과거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은 미국·캐나다·유럽 또는 일본 출신의 선진국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표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이주노동자,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 이민자,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유학생들이 다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농촌 총각들에게 해외에서 배우자를 구해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지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전북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유학생

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적지만 객지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사회는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편이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자발적 변화’다. 즉,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만 한국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한국사회와 한국인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

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보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적합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선진사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수첩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상담요원으로 결혼이민자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정신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여야 한다. 무료 또는 외국인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학비로, 그들의 노동시간이나 생활시간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 수준의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수준의 인적 동원이 가장 긴요하다. 몇몇 헌신적인 활동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과 1대1로 친구맺기를 하자

그 일환으로는 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일 대 일로 엮는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젊은 이들이 종종 시도하는 ‘일촌 맺기’를 이제는 우리 이웃이 된 외국인들과 시행함으로써 그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마음을 터 놓아야 한다.

그들을 더 이상 국외자로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과 진심을 교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면 언어 미숙은 곧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인은 외국어를 배울 것이고, 외국인은 한국어를 익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북 지역사회 주민은 진정한 세계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전북대 교수·사회학